심 판 의 날

사랑이열리는나무

2부.

심판의 날

2부 차례

1.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누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할까?

2.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

1]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2] 세상 권세를 쥔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의 교회들이 성행하는 기간

세상 권세를 쥔 거짓 목자들의 정체

3]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고난과 환난의 기간

심판의 날 한때 두때 반때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 칠십 이레)

3. 심판의 날 [한 때]

1] 두 증인과 선택 받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과 심판을 전파하는 기간

2]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간

3] 구원으로 인도될 알곡을 연단하는 기간

4]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

5] 두 증인의 정체

6]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7] 알곡을 인도하는 자 (일곱 제자 일곱 영)

8] 거짓 목자들로 인하여 택한 사도와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의 기간

4. 심판의 날 [두 때]

1] 첫 번째 징조 [태양, 달, 별들이 빛을 잃어 세상 어둠이 증거 한 심판의 자녀]

2] 둘째 징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림]

(1)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어둠의 자녀인 가라지의 통곡 (기절 절규)

(2)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인 알곡 (감사와 기쁨)

1] 어둠 속에 가라지들의 분별 (무서움과 기절 통곡)

2] 빛 가운데 알곡 [구원될 성전 안의 십사만 사천 명의 영혼들]

3] 첫 번째 심판: [모든 종교와 건축의 교회들의 심판]

4] 두 번째 심판: [거짓된 목자들의 심판]

5] 세 번째 심판: 바다와 파도의 대재앙

5. 심판의 날 [반 때]

1]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긴바 된 사단에게 권세를 주는 기간

2] 짐승의 표 [육백 육십 육 표]를 받는 자와 표를 안 받는 자

3]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4] 심판으로 갈 가라지

5] 구원의 영광으로 갈 알곡과 그리스도의 백성

6. 심판의 날 이후 [천년 이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신 29장4)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장9)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 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사 64장4)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롬 11장8)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렘 5장21)(사 43장8)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장9~14)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인간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장2~8)

인간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거나 인간들의 머리와 지능과 학문과 상식의 한계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의 지혜와 신의 이상이 마지막 구원의 언약을 위하여 온 땅에 펼쳐집니다 인류가 알 수 없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끝장과 다음 미래의 이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온 인류가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심판과 아울러 인간의 탄생과 사단의 탄생과 천사들의 실체와 인간의 영혼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지구상에 역사하는 모든 신들의 실체와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연대와 생각과 본질과 습관과 감정과 마음과 정욕과 욕구와 인간의 교육과 학문의 한계와 하늘과 하늘의 모든 이상과 모든 ufo의 실체와 예루살렘과 성경 안에 숨겨진 비밀과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다 들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의 광활한 분량입니다 인간의 인터넷이나 상식이나 서적이나 종교인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모든 인간이 단 한 번도 보고 들은 바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설마 했습니다 질문이 바닥까지 이릅니다 정말로 경이롭고 깜짝 놀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장7)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찌어다.(고전 4장1)(신 18장22)(애 2장14)(삼상 12장21)(사 9장15~16)

1. 심판의 날

Ⅰ. 땅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심판의 날 [한 때]
심판의 날 [두 때]
심판의 날 [반 때]

Ⅱ. 하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심판

심판의 날 [일곱 이레]
심판의 날 [육십이 이레]
심판의 날 [칠십 이레]

심판이 시작되는 이치를 많은 성도들이 설마설마 합니다 목자라는 분들도 속으로는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사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늘상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직감하고 느끼면서도 설마 합니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설마는 작으나마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짓된 구원으로 위로 삼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 심판이란 책자가 전파되면서 심판은 시작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의지해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반복케 하는 설교의 감동만 가르치고 좇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자신만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애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평생을 구하는 연고로 평생을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기독교인은 태생 자체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살후 2장10)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1 3장14)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1 3장16)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장7)

마지막 때에 우리를 누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할까?

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장17~21)(사 42장1~7)

②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장1~3)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장19~20)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행 7장37)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계 15장3)

③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계 10장7~11장3)

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찌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계 11장4~9)

②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 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슥 4장3~14)

언약의 사자 모세는 주의 좌편에 있는 보좌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언약의 사자인 모세는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연단을 불과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범죄하지 않는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

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딛 2장11~15)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딤전 4장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장15~1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전 1장 6~7)

2.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

1] 일곱 이레

2] 육십이 이레

3] 칠십 이레

많은 분들이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명명백백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 참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음 카페나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신들의 실체란 책자에 명명백백하게 성경 구절 구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

더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퍅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겔 3장1~11)

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장7~9)

②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 17장 12~14)

③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 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 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 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단 9장24~27)

④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 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겔 9장3~11)

1]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심판이 이르기 전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이르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사랑의 본과 귀감을 알려, 돌이키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기간

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사 40장3)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마 11장9~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마 17장11~13)

②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

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장5~6)

③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장26~30)

오늘날도 이미 엘리야가 지나갔으나 이 엘리야를 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에게 본이 되도록 하셨는데 옛날처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과 귀감으로 나타내 보였는데 정말로 단 한 명도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2] 세상 권세를 쥔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의 교회들이 성행하는 기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요1 4장1)

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장11~12)(마 24장24)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9~12)

②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장1~3)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장1)

③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요1 2장18)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교훈과 감동을 좇아난 설교로 자신이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것이 아닌, 이론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의 교훈과 감동으로 평생을 자신만을 의지한 각성과 다짐과 결심의 결과는 죄만 늘어가는 세상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인들처럼 하나같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애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평생을 구하는 성도요 평생을 세상 근심만 위로하는 아첨의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을 말만 앞세운 남의 교훈과 감동팔이 하는 목사들이요 평생을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휼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한 감정을 자극한 선동의 감동에 평생을 속아 오직 자신만을 의지한 자신의 의욕과 결심과 자긍만 일으킬 뿐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악한 습관을 벗어날 수 없는 믿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훈과 감동을 평생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평생을 말만 가르치는 자들을 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죄만 반복하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영들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물질을 좇아난 변질과 이단과 거짓의 영입니다 평생을 죄만 반복케 하는 말의 감동 즉 누룩만 가르치는 세상의 영입니다 이 땅에 존재되는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신들의 실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 권세를 쥔 거짓 목자들의 정체

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마 26장62~65)

볼 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장7)

심판이 시작되는 지금 이 땅에는 오늘날 여러분을 가르치신 분들 안에는 당시 그리스도를 직접 죽인 적그리스도가 태어나 또 목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들과 그리스도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수십 번에 걸쳐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목자인 양 행세한 거짓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참조)

②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육)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장19~20)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유 1장4)

③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장31)

④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찐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사 5장18~23)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

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장26~2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장30)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

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반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

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 3~12)

②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잠 30장12~14)

③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찌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찌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시 82장3~7)

④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사랑)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 하지 못하는 것은 하

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1 3장5~10)

3]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고난과 환난의 기간

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 21장11)

②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막 13장8)

③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 24장7)

곳곳에서 세계 경제를 흔드는 일들과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재앙과 병들이 생겨납니다 곳곳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갖 재앙과 병과 지진과 각종 재난 속에 온갖 흉악한 범죄가 늘상 일어납니다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는 말세라고 직감합니다 이 순서도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늘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계획에 따라 섭리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한 때 (마흔두 달)

두 때 (마흔두 달)

반 때 (마흔두 달)

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단 12장7)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계 12장13~14)

하나님의 심판은 대다수의 목사들이 늘상 설교처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장대로 가르치는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심판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하나님의 목자들을 통해 예비해 오신 것입니다 심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르기 전과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시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치로 두른 건축의 교회를 세워 거룩한 듯한 도둑질의 예배를 앞세워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알리게 하심에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종교의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 심판을 믿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평생을 성경 말씀의 몇 구절만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주장대로 가르쳐 온 이들에게는 이 심판의 책자에 들어 있는 몇백 구절의 성경 말씀을 부인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렘 14장 10~16)(렘 23장16~22)

우리는 이제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입맛대로 난 자신의 주장을 좇을 것인가에 대하여 심판의 길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기 위하여 성경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가장 큰 대적자요 원수가 됩니다 이 심판에 쓰인 성경 말씀은 몇백에 이릅니다 감히 이 몇백에 해당하는 성경말씀을 부인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처럼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평생을 죄만 반복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원수와 대적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욕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믿고 좇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 심판의 날 [한 때]

1] 두 증인과 선택받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과 심판을 전파하는 기간

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장17~21) (사 42장1)

②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장14) (막 13장10)

③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장19~20)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행 7장37)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계 15장3)

④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 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장1~3)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 10장7~11)

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계 5장6)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 16장27~28)(막 9장1)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심판의 책이 온 땅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또한 저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을 평생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악한 습관과 지체를 없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능력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사 34장16)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장7)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고전 4장1)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장22)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전 2장6~7)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장9~10)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장14) (막 13장10)

2]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장32~46)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숫 군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장 37~43)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장9~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 3장17~4장3)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사 49장5~10)(사 42장1~7)

3] 구원으로 인도될 알곡을 연단하는 기간

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 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장1~3)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장19~20)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행 7장37)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장3)

②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숫군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장 37~43)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 17장12~14)

요한계시록에 15장 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계 14장14~17)

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장9~1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

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장13~20)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 12장 33~35)

②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장21~23), (눅 6장46~49)

③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 찌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

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 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롬 9장27~29)

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 찌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장9~13)

②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암 9장8~10)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인간들의 의욕으로 난 사랑은 식어갈 수밖에 없는 위선과 생색의 봉사와 구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난 선과 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좇지 않고 평생을 죄만

반복하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사회적 구제와 봉사와 교회 안의 봉사로 인한 결과는 죽을 때까지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정욕을 좇아난 습관과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면서 하나같이 세상인들과 똑같이 오직 자신만의 축복과 가정과 행복만을 위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을 바라는 육체의 욕구를 좇아난 육신의 믿음들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변질과 이단과 거짓을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강력한 신의 능력으로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욕과 죄를 일으키는 세상과 육을 좇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형제들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만 구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1 3장16)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장7)

5] 두 증인의 정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
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계 11장3~4)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슥 4장3~14)

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장17~21)(사 42장1~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 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장1~3)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장19~20)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행 7장37)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계 15장3)

6]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1. 언약궤 (계 11장19) (신 10장1~10)
2. 두 증인 (계 11장13) (출 6장13)등
3. 열두 보석 (계 21장10~21) (출 28장15~29) (출 39장8~21)
4. 지팡이 (계 11장1) (출 4장20)
5. 열두 지파 (계 21장12~14) (출 28장5~21)
6. 모세의 재앙과 계시록의 모든 재앙 (계 8장1~6) (출 8장19~12장 34)

1] 첫 번째 징조 [태양, 달, 별들이 빛을 잃어 세상 어둠이 증거 한 심판의 자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출 10장21~23)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24장29)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사 5장3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행 2장20)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사 34장4)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해와 달과 별들에게 명하니 하늘의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과거처럼 모세에 의해 모세의 재앙의 시작이 진행됩니다.

2] 첫 번째 심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출 9장 23~26)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

위더라.(계 8장7)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장19)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눅 17장26~29)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 하리라.(계 11장3)

7] 알곡을 인도하는 자 (일곱 제자 일곱 영)

①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영)교회니라.(계 1장20)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계 5장6~7)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행 6장3~6)

일곱 영: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②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 16장27~28)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막 9장1)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장24)

③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장9)

8] 거짓 목자들로 인하여 택한 사도와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의 기간

①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장9)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장24)

②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마 10장 16~23)(막 13장9~13)

③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눅 21장12~18)

④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 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갈 4장28~30)

이 심판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의 목자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다 도둑질을 위해 건축의 교회를 세워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설교의 감동이 누룩인 줄도 모르고 자신만을 의지한 자신의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일으키는 거짓된 믿음이다 평생을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요 듣기만 하는 신앙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믿음이다 자신의 모든 이상과 목숨까지도 부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자신의 의욕과 혈기의 믿음들이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

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막 12장1~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

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1 4장7~16)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 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1 4장20~2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3서 1장 11)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1 3장14~15) (잠 21장13)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1 4장20)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장17)

심판의 날 [두 때]

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계 11장3~6)

②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단 12장7)

③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계 12장13~14)

4. 심판의 날 [두 때]

1] 첫 번째 징조 [태양, 달, 별들이 빛을 잃어 세상 어둠이 증거 한 심판의 자녀]

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출 10장21~23)

②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24장29)

③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사 5장30)

④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행 2장20)

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

⑥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사 34장4)

빛과 어둠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린다 과거 모세의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 위에는 하나님의 빛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빛이 광명처럼 대낮과 같이 비추었던 것이다 반대로 애굽의 땅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명한 모세로 인하여 캄캄한 흑암만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일어난다.

2] 둘째 징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찐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사 5장18~1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마 26장64) (막 14장62)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 16장27~28)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계 21장2~4)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찌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7장15~17)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장7~9)

하늘로부터 성 예루살렘을 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오는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이 과거와 같이 하늘의 장막을 치시어 모세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 광명과 같이 비추고 보호하신다 이는 불의 장막으로 둘러 더 이상은 들어갈 자도 나갈 자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알곡과 가라지는 명확하게 갈린다 사단들의 표만 받지 않으면 되질 않느냐고 미련한 사람들이 말한다 이미 알곡은 한 때부터 연단되며 녹명되지 못한 자 즉 선택받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

라.(계 17장8~9)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장1~18)

녹명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은 신과 같은 기적을 나타내고 세상을 장악한 사단들에게 다 충성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사단들에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사단들을 통해 시험을 하시고 연단과 죽음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자녀로 녹명되지 못하는 자들은 사단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1)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어둠의 자녀인 가라지의 통곡 (기절 절규)

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장26~27)

②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장30)

③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장7~9)

④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 하듯 하게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

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사 8장20~22)

빛의 예루살렘이 장막이 되어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요 알곡이요 구원의 자녀라 그러나 따르지 않았던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요 가라지요 심판의 자녀로 나누어진다 이는 과거 모세의 시대와 똑같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빛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낮과 같았고 애굽은 캄캄한 흑암 속에 어둠의 자녀요 심판의 자녀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출 10장21~23)

(2)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인 알곡 (감사와 기쁨)

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슥 2장 1~5)

②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사 4장2~6)

③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 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 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민 9장15~23)

④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장3)

1] 어둠 속에 가라지들의 분별 (무서움과 기절 통곡)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찐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사 5장18~19)

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장26~2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장30)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장7~9)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

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 하듯 하게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

②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사 8장20~22)

③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찌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미 3장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

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시 82장6~7)

하나같이 목사들이 너희는 성령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죄만 반복하는 마귀이기에 심판으로 죽는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왜 무서워하고 왜 기절하며 통곡하겠는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사 5장18~19)

거짓된 목사들이 자신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설교를 믿던 사람들이 세상의 심판의 책자를 보고도 설마 했던 사람들이, 이 심판의 책자 에 기록한 내용대로 해와 달과 별이 모세의 명령에 빛을 잃고 진흙과 같은 어둠 속에 빛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통곡한다는 말씀이다 이 심판의 책의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 이것이 무엇이지라고 의문을 가질 뿐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통곡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지금 이 심판의 날의 책자를 보고도 따르지 않은 자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통곡한다는 말씀이다 당신이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

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 21장26~2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장30)

상식이 있는 자들아 생각해 보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무서워할 일도 통곡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하늘에서 온 땅에 빛이 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통곡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심판이 온 땅에 퍼져 자신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따르지 않았는데 실제로 심판의 내용처럼 하늘에서 빛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야 그제야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 심판의 자녀요 가라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기절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한다는 말씀이 이 심판을 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은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나 따르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의 공포와 무서움과 절규와 탄식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의 고통과 눈물과 절규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2] 빛 가운데 알곡 [구원될 성전 안의 십사만 사천 명의 영혼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장1~5)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

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계 7장1~8)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롬 9장27~2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 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찌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장 9~13)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

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암 9장8~10)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14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 죽은 성도들과 사단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말하는 십사만 사천 명을 앞세운 내용도 맞지 않고 하늘에 존재 자체가 없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베드로 지파나 바울의 지파를 앞세우는 거짓을 좇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는 베드로나 바울의 지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 둘째는 자정

이라 **그 열 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계 21장11~21)

어떠한 믿음이든 어떠한 신앙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도 미국인도 프랑스인도 영국인도 유럽인도 동양인도 단 한 명도 천국에 이를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만이 들어가는 천국 문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외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천국 문 자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문 자체가 없는데 한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영국인 유럽인 동양인 여러분은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사 22장22)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계 3장7)

다윗의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당신들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셀 수도 없는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의 간증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100% 거짓이거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 말씀에 없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결과로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치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생

각하고 결정한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3] 첫 번째 심판: [모든 종교와 건축의 교회들의 심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장19)

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계 8장7)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출 9장 23~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눅 17장26~29)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출 9장 23~26)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장19)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계 8장7)

과거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땅에 우박과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는 재앙을 친 것과 똑같이 심판의 날에 첫 재앙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과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과 바다와 들과 강의 삼분의 일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첫 재앙의 시작입니다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절규와 탄식과 고통과 울부짖음 속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단 한 번도 보고 듣고 겪어 보지 못한 고통 속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가 먼저 된 고민의 시작입니다 물은 불덩어리들의 독성으로 마시지 못하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식량도 구입할 수 없고 타버린 나무의 뿌리도 먹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할꼬!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눅 17장26~29)

이 땅에 모든 종교들의 건축물과 모든 도둑질을 위한 기독교의 십일조와 헌물로 세워진 건축의 교회들을 하늘의 불덩어리들이 떨어져 다 태우고 무너지나니 그때에 이르러 누가 감히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목자라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믿으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건축의 교회를 우상으로 삼았던 성도들의 응어리와 절규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나니 이에 책임을 누가 질꼬! 교회 안에 마치 하나님인 양 큰소리 쳤던 목자들이 어디에 숨었뇨 성도들의 절규와 분노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의 비참함이 너희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니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 너희여 너희의 죄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도다 무엇으로 담당하랴 가르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살후2장3~12)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눅 21장6)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

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슥 5장4)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욥 12장6)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 하도다.(전 8장11)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롬 2장4)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장8)

4] 두 번째 심판: [거짓된 목자들의 심판]

①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찜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슥 13장4~6)

②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숴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암 9장1)

③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 된 자의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10장1~4)

④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어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 3장2~8)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요 10장11~15)

이 땅의 모든 우상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목자라 하랴! 속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의 분노와 눈물과 절규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무자비하니, 너희가 평생을 성도들 앞에 거짓말한 죗값으로 심판의 자녀로 만든 결과를 무엇으로 담당하고 누구에게 구하여 용서를 바랄꼬?

5] 세 번째 심판: 바다와 파도의 대재앙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눅 21장25)

그 때에 유대(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24장16~21)

온 땅의 지각이 변동하여 바다와 파도가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삼키리라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고 피해를 입으리라 이는 너희가 재난영화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공포의 바다가 너희와 너희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5. 심판의 날 [반 때]

1]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긴 바 된 사단에게 권세를 주는 기간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 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단 9장24~27)

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 12장 7~12)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 17장8~14)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계 19장19~20장2)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리스도에게 지자 사단이 땅으로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이 땅을 말한 것이다 이 날에 사단들이 내려와 이 땅을 지배하나니 이는 마흔두 달의 권세를 받음이라 인간 세상은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666명의 사단들에게 충성 맹세로 하나같이 표를 받나니 이는 녹명되지 않은 어둠과 심판에 있었던 백성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니 이는 사단들에게 복종치 않는 연고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도다.

2] 짐승의 표[육백 육십 육 표]를 받는 자와 표를 안 받는 자

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 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 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 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륙이니라.**(계 13장1~18)

②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좇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겔 9장3~6)

③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

리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계 19장19~20장2)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마흔 두 달의 기간이 넘은 후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사단을 다시금 하늘의 감옥에 넣는다는 말씀이다.

3]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 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계 11장7~13)

②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 6장2~3)

③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 9장26)

④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단 12장11~13)

4] 심판으로 갈 가라지

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 빛과 유황 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계 9장 17~21)

②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

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찌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장1~18)

③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 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계 19장19~20장2)

5] 구원의 영광으로 갈 알곡과 그리스도의 백성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계 21장2~4)

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장1~5)

②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

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장15~17)

③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전 15장51~54)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장18~21)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고전 15장40)

6. 심판의 날 이후 [천년 이후]

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계 20장1~8)

②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

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장4~5)

③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65장17~25)

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계 21장11~21)

②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마 26장62~65)

볼 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장7)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육)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장19~20)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유 1장4)

③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장31)

여러분들 눈물로 호소합니다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자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쓰인 경전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는 가운데 기록한 피로 쓰인 말씀입니다 부디 심중에 심중으로 읽으시고 감히

성경 말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지막 구원의 언약입니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 이상을 경솔하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과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은 결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절규와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될 것입니다 재난의 영화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창세에서 이르러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환란입니다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부디 이 생명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눈물로 이 글을 여러분께 바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눅 17장26~29)

마지막 때에도 과거 노아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에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은 물과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심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하리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히 두려움으로 이 심판의 글을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경고합니다 이 심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판의 날을 위한 구원을 위한 언약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책을 보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

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까지도 명확하게 성경 말씀 속에 예언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사 5장18~19)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시 82장5~7)

또한 자신들이 신(성령)을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지존자)의 자녀라고 칭하는 자들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죽으며 높다고 하는 직분자들과 같이 엎드러지리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유대교처럼 지금의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르침과 주장의 구원과 성령과 은사와 능력은 100% 다 거짓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긍하는 것은 선과 의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며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죄인들을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양 여기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인이며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당신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 땅에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롬 9장25~27)

이 심판의 책의 내용을 보고도, 거짓된 목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고 주관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걱정치 말라는 거짓된 위로의 말만 믿고, 심판의 내용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 앞에, 두 때의 첫 징조 앞에 모세의 심판의 책의 내용 그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여 빛을 내지 못하게 하자 대낮의 해도 그리고 밤의 달도 별도 빛을 내지 못한, 과거 애굽 땅에 임한 첫 증표가 세상에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출 10장21~23)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

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사 8장20~22)

과거 모세의 시대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의 성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여 빛의 자녀와 세상은 애굽 땅에 임한 것처럼 어둠의 자녀로 나누어집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24장29)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사 5장3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행 2장20)

모세의 지팡이로 온 세상과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와, 이 심판의 책에서 말한 것 같이 어둠 가운데서 심판의 내용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늘로부터 빛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믿고 따르지 않았던 어둠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앞으로 자신들에게 임할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죽음으로 인하여 기절하고 통곡하고 절규한다는 내용들이다 부디 여러분 이 심판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입니다 때 늦은 후회와 공포와 통곡과 절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눅 21장26~2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장30)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장7~9)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장9~10)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타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동반하여 오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 모

세와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장막과 같이 하늘에서 덮으시어 보호하신 후에 하늘에서 첫 재앙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계 21장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마 26장64) (막 14장62)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7장15~17)

첫 재앙도 모세의 시대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첫 재앙으로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보고 겪지 못한 무시무시한 불덩이들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

움과 불안과 무서움은 무엇으로도 위안이 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 책자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장19)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출 9장 23~26)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재앙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다와 지진이 온 인류를 삼킬 것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이들이 죽음과 절규와 탄식과 공포에 매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고 이 두려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유일하게 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눅 21장25)

그 때에 유대(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장16~21)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장8)(렘 7장4~11)(마 21장13. 막 11장17. 눅 19장46)(욥 12장6)

십일조와 헌물을 통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나누어주어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함에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말만 앞세운 설교의 감동으로 사리사욕과 탐욕을 위한, 세우지 말라는 건축의 교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에 의해 다 불태워지거나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나니 이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으랴!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눅 21장5~6)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슥 5장4)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계 2장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계 3장9)

그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축의 종교들과 교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너진 교회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목자라고 감히 칭하겠느뇨! 성도들의 분노와 절규에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가 어찌 하나님의 참된 목자랴! 사치로 두른 건축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자라 칭하는 모든 자들이여! 분노와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 성도들의 절규를 어떻게 피할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교회 안에서 큰소리만 쳤던 너희여! 성도들의 절규와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날에 재앙을 어떻게 피하고 무엇으로 담당할꼬!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꼬!(살후2장3~12)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찜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슥 13장4~6)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암 9장1)(요 10장11~15)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 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10장1~4)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찌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어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 3장2~8)

회개하라!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치는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니 미혹으로 이끈 자들이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너희들의 죄가 속히 임하지 않는 연고로 죄에 대하여 담대한 너희여! 너희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하심으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 8장11)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도다(롬 2장4~5)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욥 12장6)

하나님의 참된 목자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좇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는 자라 세상이 인정하는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학벌을 앞세워 평생을 말만 앞세운 설교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들을 평생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말만 앞세운 감성팔이 누룩의 설교로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반복케 하는 목자는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다 나는 마태복음의 심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 언약의 사자라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랴! 그 언약궤를 열 자가 누구랴! 마지막에 구원자들이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르랴! 심히 고민하라! 하나님

의 마지막 언약을 지킬 자들이여! 나는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언약의 사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위한 예비의 하나님의 사자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장17~21) (사 42장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장1~3)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사 19장19~20)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행 7장37)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장3)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시 82장5~7)

자신들이 신(성령)을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지존자)의 자녀라고 칭하는 자들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죽으며 높다고 하는 직분자들과 같이 엎드러지리라는 말씀이다 과거의 유대교처럼 지금의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것이다 죄를 반복하는 모든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가르침과 주장의 구원과 성령과 은사와 능력은 100% 다 거짓이다 죄를 짓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큰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라고 말씀에서 명명백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욕보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사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뿐이요 하나님 앞에 대적이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 자체가 사단이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12장7)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요 8장44)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롬 11장32)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요1 3장8~10)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장2~3)(갈 4장9~11)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장5)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창 8장21)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롬 3장1~6)

죄만 반복하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이상은 죄만 반복하도록 인도하는 설교의 감동만을 좇지 마십시오 죄가 그리스도의 열매입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과 지체를 죽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의지해 각성과 다짐과 결심만 의지하도록 하는 설교의 감동은 결코 반복되는 성도들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들의 육체의 본질과 습관을 죽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1 3장3~9)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장17~23)(롬 8장17~28)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1 3장5)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1 3장8)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온갖 변질과 이단과 거짓을 좇아난 과거의 모든 종교들과 유대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종교인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자신의 말과 이론만 평생을 앞세운 자들이요 평생을 듣기만 하는 머리와 지능만 앞세운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는 사랑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서 범죄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9~12)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삶 속에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탓에 죽을 때까지 죄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평생을 자신만의 가정의 축복과 만사형통만을 위한 세상 근심만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창세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자와 원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처럼 종교인들이었다 오늘날 심판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과거 유대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과 카톨릭인들이 주관하고 이끄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에서와 같이 오직 자신의 축복을 위한 하나마나한 눈물과 회개만 하는 자들에게는 거듭남의 그리스도의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2장11~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장3)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하는 기독교인들이여! 거듭남의 회개도 모르는 무지와 겨자씨만한 믿음의 열매도 증거도 없는 자들이여! 평생을 자신의 가정과 성공

과 행복과 축복만을 위해 평생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애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인 세상 근심만 바라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장22~24)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장10)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 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 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장9~12)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의 설교와 구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이 능력의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는 말만 앞세운 설교

의 감동이 아닙니다.(롬 6장17~23)

그리스도의 소망을 좇아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과정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5장 3~5)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장16~17)

인간의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깨닫는 말의 설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 우리를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삶 자체에서 양육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장2~8)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장15~16)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딛 2장11~15)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딤전 4장6)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골 2장18~19)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장10)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장17~18)

다른 사람의 경험과 교훈을 좇아난 설교의 감동을 평생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휼한 것이 아닌 교훈과 감동으로 평생 수만 번 수억 번을 각성과 다짐과 결심과 아멘만 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는가? 죄만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랴! 더 이상은 말만 앞세운 설교로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욕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랑의 진리 자체를 부인해 버린 사람의 말만 앞세운 교훈은 마음만 부풀리게 하는 누룩이요 사람의 교훈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의 진리가 아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장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장5)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장17~21)

하나님의 나라.(진리)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장20)

평생을 말의 감동만을 가르치고 평생을 듣기만 하여 자신만을 의지한 각성과 다짐과 결심은 죄만 더욱 쌓아갈 뿐이다 평생 말과 이론만 좇아난 사람의 지

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이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롬 1장9~12)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전 1장 6~8)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믿음이 아닌 평생을 말만 앞세운 감동의 설교만 좇는 자들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는 자들의 구원으로 분별함이니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도 죽지도 않는다 평생을 세상 근심만 구하는 자는 심판의 자녀니 평생을 가정의 근심, 사업의 근심, 자녀의 근심, 직장의 근심, 애정의 근심, 건강의 근심만을 위한 세상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믿음들이 아닌가? 평생을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과 다를 바 없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믿음이 아닌가? 쌓여만 가는 자신의 죄가 이미 증거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장10)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장7)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1 3장16)

세상인들처럼 자신만의 축복과 행복과 성공만을 위한 종교인들처럼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1 4장1~8)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전 4장1~2)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롬 16장18)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장15~17)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설교의 감동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하는 악한 마귀가 만들어준 악한 습관을 없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목자입니다 참 목자를 찾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얻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장1~2)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예하였더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렘 23장17~22)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 5장19~20)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장3)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말 2장5~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장16~18)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장19~21)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장8~10)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언약입니다 심판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 앞에 단 한 명도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구원이 이 심판이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심에 태초 전부터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대상으로 삼고자 성경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부디 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심판과 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디 버리시지 마십시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온갖 죄악이 진동하는 세상과 더불어 썩어갈 수밖에 없는 알곡들을 구하여 새 땅과 새 하늘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아신다면 결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모든 성경 말씀의 구절 구절은 창세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피눈물로 쓰인 글입니다 뼈를 깎아 가슴으로 새겨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눈물과 핏값으로 쓰인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목자들의 목숨의 피 값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창세에서부터 이르러 모든 선지자들의 땀방울과 눈물과 피 값이 이 심판 안에 녹아 있습니다 부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정말로 신비하고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령한 찬미의 눈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말 못하는 젖먹이들도 찬미합니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마 21장16)(시 8장2)

죄만 쌓아 양심이 황폐해져 가는 인생들이요 갈핍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만 커져 가는 죄인들이여! 혈기와 의욕을 좇아 평생을 죄만 쌓아온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잡으라! 평생을 죄인들을 위하여 손을 펴 잡아주시기만을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은 죄만 반복하는 너희의 보잘것 없는 믿음으로 풍성하심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지 말라 회개치 않는 너희의 고집이 심판을 불렀도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도다.(롬 2장4~5)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같이 죄에 대하여 심히 담대하도다 자신들의 죄를 인내하심으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는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 8장11)

사치로 하늘을 찌를 듯 장성한 강도의 굴들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너희

가 실로 담대하도다 도둑질의 예배들이여, 슬퍼하라! 심판의 날에 무너져 내릴 우상들이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무너지고 하늘의 불덩어리가 너희를 삼키리라 마지막 기회라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지니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욥 12장6)(마 23장16~24)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슥 5장4)(렘 7장4~11)(롬 2장8~12)(갈 5장19~21)(미 3장10~12)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눅 21장5~6)

여러분이 죄를 없애지 못하는 수십 년을 믿으며 수십만 번을 들은 감동팔이 설교 안에서 단 한 가지도 보고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말씀대로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보고 듣지 못할 신의 지혜입니다 정말로 경이롭고 정말로 신기하고 정말로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과 신의 이상과 신의 영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견고하도록 인도하는 신의 강력입니다 사람의

학문이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난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어 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머리와 지능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이상이요 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빌 3장8~9)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2장 4~14)(요 14장26~27)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사 40장13~14)(요1 2장27) (욥 13장1)

강의 내용의 하나님의 진리는 엄청날 정도로 광활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자체를 초월합니다 평생을 다 들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신 모든 질문이 바닥이 날 정도로 답변을 얻습니다 강의는 성도들의 질문 속에 더 깊고 더 신기하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나타납니

다 하나님께 알고자 하는 모든 질문 다 싸 가지고 오십시오 인간의 질문의 한계가 바닥에 이를 만큼의 광활한 진리입니다 통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이 생명과 구원을 위한 말씀임을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자리 관계로 많은 분들을 한 번에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는 신청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음 카페에 들어가 가입하고 이 카페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연락처: 010-8680-1440, 010-4655-3735, 010-3434-7144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4321qaz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메일 주소 : nazirite90@gmail.com

이 말씀이 심판의 날에 진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라고 여기신다면 온 땅에 뿌려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후원해 주십시오.

신한 / 최혜영 / 110-497-807547 농협 / 최혜영 / 302-1598-4076-21

인생과 영혼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있기 전부터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가는 것인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인간이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진리가 있나니

이 영원한 진리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장 큰 진리와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는 티끌 없는 하늘을 닮으려는 갈핍한 마음의 몸부림이요

맑고 깨끗한 공의와 정의와 신의를 부르짖는 양심의 등불이요
세상에 어둠과 죄를 밝히는 샛별과 같은 양심의 빛이라

하늘을 삼킨 바 되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의 영혼 속에 간직하는
영원한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영혼은 하늘도 삼키는 큰 마음이라

우리의 영혼은 하늘보다 큰 그릇이요, 모든 만물과 생명을 심는 밭이라
작은 씨앗이 큰 거목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수고함이 넘쳐,
그 결실을 풍성하게 얻도록 함이니 이 결실의 영광은
농부의 끊임없는 땀방울과 고난 속의 눈물이라

이에 인생 속에 반복되는 수고함의 연속이니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깊이를 아는 자가 없고,
이 넓이를 측량할 눈이 없으며 이 높이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이 없나니
이는 인간의 도와 가치와 깊이가 바라볼 수 없는 이상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라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사랑의 진리를 배우라!
이것이 생명을 찾는 길이라!